

고유명사와 정관사 공기에 대한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습득 실태 분석*

최정아 · 이예식**

(경북대학교)

Choi, Jeong-A & Lee, Yae-Sheik. (2018). An analysis of Korean English learners' acquisition of the definite article co-occurring with proper noun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6(4), 245-266. The present study aims to show whether Korean students' acquisition of *the* co-occurring with proper nouns is influenced by their familiarity with such definite article usage. To achieve this aim, the current study conducted two questionnaires. The first one was administered to 111 Korean students (41 middle school, 49 high school, and 21 college) in order to determine the degree of their English article acquisition; the second one to 55 college-level Korean English learner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rners' familiarity with usage of the definite article with proper nouns and the degree of their acquisition. The results from the second questionnaire confirm a meaningful correlation between the college students' acquisition of definite article usage with proper nouns and their familiarity with such usage. Furthermore,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pecific rule constraining the occurrence of the definite article with proper nouns does not affect the subjects' scores on the usage ques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Korean EFL learners in this study do not have enough exposure to instances where the definite article co-occurs with proper nouns for specific rules to influence their scores on the usage questions.

주제어(Key Words): 정관사(definite article), 고유명사(proper nouns), 습득(acquisition), 친숙도(familiarity), 한국인 영어학습자(Korean EFL learners), 상관관계(correlation)

* 심사자들의 귀중한 코멘트가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 아울러 논문의 자료 수집과 분석에 도움을 준 김지희, 박향숙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제1저자: 최정아, 교신저자: 이예식

1. 서론

제2언어 습득에서 언어학습자의 습득 정도는 학습 빈도(frequency)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언어학습자에게 노출된 정도가 많은 언어항목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만큼 더 친숙하게 되고 더 빨리 습득된다 (Hamayan & Tucker 1980; Larsen-Freeman 1976a&b; Lightbown 1983; Long 1981). 특히 제2언어 습득에서 어휘, 음성학, 읽기와 쓰기, 형태론적 분야에서 친숙도는 중요한 습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Beck, 1997; Birdsong & Flege, 2001; Ellis 2002; Nation, 2001; Palmberg, 1987). 이런 친숙도 효과뿐만 아니라 특정 언어항목의 어법을 규정하는 명시적인 규칙의 존재 유무에 따라 해당 언어항목의 습득 정도도 영향을 받는다. 물론 명시적인 어법이 존재하고 그 어법에 학습자들이 접근 가능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쉽게 해당 언어항목을 습득한다 (이예식과 진현석, 2013).

관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일반적으로 명사의 의미적 유형에 따른 관사의 쓰임을 얼마나 습득하였는지를 연구한 내용들이 있다. 가령, Cziko (1986)는 영어 모국어 화자가 지시대상의 구체성(specificity)과 전제성(presupposeness)의 인식에 따라 관사를 습득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Ionine, Ko & Wexler (2004)는 제2언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피실험자들은 해당 명사구의 한정성(definiteness)과 특정성(specificity)자질을 기준 삼아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습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가 모국어인 피실험자는 정관사 쓰임 여부를 결정할 때 한정성이 아닌 특정성에 기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향이 정관사 사용의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제2언어학습자의 고유명사와 정관사 쓰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에 있다. 실제 기사와 같은 실용적 영문을 살펴보면 정관사가 고유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그러나 한국 영어교육 과정(syllabus)에서 고유명사에 대한 정관사 용법을 가르치는 수업목표를 찾아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이 언어형식에 대한 습득정도를 연구한 기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고유명사에 사용되는 정관사 습득 실태를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관사와 고유명사 공기에 대해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가지는 친숙도와 습득정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둘째, 고유명사에 사용되는 정관사 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간의 학습자들의 학습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특별히 친숙도와 명시적 규칙 존재 여부에 따라 고유명사에 대한 정관사 용법의 습득 정도를 살펴보려는 이유는 아래 이론적 배경에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설문지를 작성하고 한국인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설문은 이들 세 집단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관사(정관사와 부정관사 그리고 무관사) 습득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 설문에서 관사용법의 습득정도를 조사한 것은 물론 해당 명사구의 관사 쓰임에 대한 학생들의 친숙도도 측정을 하였

다. 두 번째 설문에서는 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영어 고유명사의 정관사 사용과 친숙도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해당 고유명사구에 대한 정관사용법의 습득 정도가 그들이 갖는 친숙도에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뿐만 아니고 고유명사 별로 정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명시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고 이 두 경우가 학습자들의 친숙도와 학습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한국 학생들이 고유명사에 사용되는 정관사 용법의 습득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떤 요인이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정관사 용법의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 관계적 특성

의미-화용론에서 고유명사는 유일성(unicqueness) 한정성(definiteness)으로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관사 ‘the’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친숙한 개체를 나타내는 친숙성(familiarity)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bbott, 2001, 2009; Roberts, 2003).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에 대해서 의미-화용론적 측면에서 몇 가지 언어적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최정아와 이예식, 2017). 첫 번째, 정관사는 고유명사와 함께 쓰인다. 예를 들면 ‘the Crystal Palace’, ‘the Bay of Bengal’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두 번째, 정관사는 고유명사가 나타내는 개체의 유일성(unicqueness)을 돋보이게 한다. Roberts (2003: 289)는 ‘Ohio State University’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곳 Columbus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유일한 대학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정관사 ‘the’를 사용하여 ‘The Ohio State University’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정관사의 한정표현의 의미를 Russell(1905)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1) a. The Ohio State University is in Columbus.
 b. $\exists x$ [state-univ(x , Ohio) & $\forall y$ (state-univ(y , Ohio) $\rightarrow y = x$) & in-Cols(x)]

(1b)에서 밑줄 친 부분이 정관사 ‘the’로 인한 유일성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오하이오에 있는 대학이면 모두가 x 와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정관사의 유일성을 설명할 수 있다 (Löbner 1985).

세 번째, 형태론적 제약조건으로 한정사와 고유명사의 결합이다. 이것은 고유명사가 나타

내는 유일한 개체를 확정하는데 추가적으로 한정적 정보가 필요함을 표시한다. Matushansky (2006:297)은 M-merge (D[def], N[+proper]²⁾을 이용해서 ‘Oxford Road’(Quirk, Greenbaum, Leech & Svartvik, 1985)의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원래 이 단어는 ‘The Oxford road’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명사 ‘road’가 보통명사이므로 [-proper] 자질을 가지므로 Determiner와 결합될 때 [+definite] 자질을 받게 되어서 ‘the’와 함께 쓰이게 되었다고 본다. 이후에 ‘The Oxford Road’로 변천되는데, 이때 명사 ‘Road’가 [+proper] 자질을 가지게 되고 Determiner와 결합되면서 [+proper] 자질이 차단되고 음성적으로 발화하지 않아 결국에는 ‘Oxford Road’로 쓰이게 되었다.

네 번째, 고유명사가 나타내는 것이 인간의 영향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관사를 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Van Langendonck & Van de Velde (2009)는 ‘인간 중심’(Anthropocentric Cline)³⁾이론³⁾을 내세우며 고유명사에서의 정관사 생략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 도심의 거리, 공원, 해변, 다리, 호수(street, avenue, square, road, place, crescent, bridge, mount, cape, lake, island) 등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관사와 같이 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유명사들에 정관사 출현 여부 및 범주를 나타내는 정확한 언어적 정보가 고유명사 자체에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정관사가 어떤 경우에 고유명사에 와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제2언어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고유명사에 정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언어적 규칙을 습득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학습자들은 개별 어휘를 학습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관사와 고유명사 공기현상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가정이 옳다면, 정관사와 고유명사 공기에 대한 습득정도는 해당 언어항목에 노출된 정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도 가정해 볼 수 있다.

2.2. 빈도효과와 친숙도

빈도가설(Frequency Hypothesis)은 언어학습자들이 입력의 빈도에 따라 언어자질을 습득한다는 이론이다 (Hatch & Wagner, 1976). 이 이론에 따르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질은 그렇지 않은 자질보다 먼저 학습된다고 본다. 빈도가설에 대한 증거는 입력 자질의 빈도

2) [+proper]은 고유명사임을 의미한다.

3) Van Langendonck and Van de Velde (2009): ‘Anthropocentric Cline’

Once the uniqueness of their referents is taken to be achieved enough(e.g. their referent is well known to or famous to the speech community concerned.), the definite article might drop out of its hosting proper names. Or the descriptive common noun is omitted from the proper names.

와 습득 척도의 상관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제2언어 습득에서 빈도에 따른 언어입력과 출력에 관한 많은 연구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언어 입력 빈도와 출력의 정확성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발견한 연구 (Hamayan & Tucker 1980; Larsen-Freeman 1976a&b; Lightbown 1983; Long 1981)가 있는 반면에 입력 빈도와 출력의 정확성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한 연구 결과 (Long & Sato, 1984; Snow & Hoefnagel-Hohle, 1982)도 있다. 이런 상이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2언어습득에 있어 빈도효과는 다른 요인들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Ellis & Schmidt, 1998; Gass & Mackey, 2002).

특히 Ellis (2002)는 음성학, 읽기와 쓰기, 어휘,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빈도효과 (Frequency Effect)를 연구하였는데, 이때 언어습득에서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은 내재된 언어 습득 장치의 어떤 형태로부터 파생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이른 바 연결주의 이론(Connectionist Theory)을 도입하면서, 언어지식을 내적으로 연결된 교점으로 보았다. 이때 망을 연결시키는 것을 입력 빈도라고 보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Ellis(2002)는 빈도는 습득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인간의 기본적 능력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휘와 관련된 빈도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제2언어 어휘 습득에서 빈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는 여러 연구가 있어왔다 (Nation, 2001). 이와 관련하여 Palmberg (1987)는 영어 습득 초기단계에 있는 스웨덴어 모국어 학습자들이 교과서의 높은 빈도의 어휘를 잘 습득한다는 연구를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Elley (1989)의 연구 또한 7~8세의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습득된 어휘 빈도에 따라 목표어를 습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빈도효과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 Birdsong & Flege (2001)은 스페인인과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과거시제를 습득하는 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들은 명시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는 불규칙 과거시제의 습득정도를 스페인인과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가 입력빈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제2언어 습득에서 빈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고유명사에 사용되는 정관사의 용법 또한 불규칙하다. 가령, 배(ship), 강(river), 사막(desert)의 명칭은 정관사를 반드시 취한다는 명시적 규칙이 적용되지만 극장(theater), 다리(bridge), 도로(road) 명칭은 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불규칙한 정관사의 용법에 대한 제2언어 학습자들의 습득은 Birdsong & Flege (2001)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입력빈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언어학습자들의 영어 고유명사와 정관사 공기에 대한 노출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이 정관사 용법의 습득에 미치는 빈도효과를 보다 정확히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언어형식에 얼마나 자주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노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순수한 노출 빈도 대신 학습자들이 느끼는 친숙도를 조사하고, 그 친숙도로 노출 빈도를 대신하고자 한다.

친숙도와 노출빈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다룬 기존 연구를 보면 친숙도와 빈도 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Bannard & Matthews, 2008; Connine, Mullennix, Shernoff & Yelen, 1990; Rapp, 2005; Tanaka-Ishili & Terada 2011). 특히 어휘 빈도와 친숙도를 연구한 Rapp (2005)에 의하면 어휘의 빈도와 친숙도는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도 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⁴⁾. 그리고 본 연구에서 친숙도를 조사 하여 실제 노출 빈도를 대신하려는 시도는 이런 기존 연구 결과에 기대고 있다.

3. 본 연구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영어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관계를 얼마나 습득하였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이 언어형식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갖는 친숙도가 그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그뿐만 아니고 고유명사가 정관사를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를 명시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고 이 두 경우가 학습자들의 친숙도와 학습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정관사를 포함한 영어 관사 습득 실태는 어떠한가?
- 둘째, 영어 정관사와 고유명사 공기에 있어 연구대상자가 갖는 친숙도와 습득정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셋째, 정관사와 고유명사 공기를 규정할 수 있는 규칙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간의 습득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4) Rapp (2005: 256)는 아래와 같이 연구 단어 코퍼스의 빈도와 친숙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Correlations between corpus frequencies and familiarity judgement>

CORPUS	CORPUS SIZE	CORRELATION
Brown Corpus (log frequencies)	1 million	0.6629
BNC (log frequencies)	100 million	0.7465
BNC (no logarithm)	100 million	0.1233
BNC (lemmatized, log frequencies)	100 million	0.7080
BNC (spoken only, log frequencies)	5 million	0.6631

* BNC- British National Corpus (BNC, Burnard & Aston, 1998)

3.1. 설문 1: 영어 관사습득 실태 및 친숙도 조사

3.1.1. 설문 실시

대구 경북 소재의 중학생 집단 41명(중3, 평균16세, 남자 18명, 여자 23명), 고등학생 집단 49명(고2, 평균18세, 남자 49명), 대학생 집단 21명(대학 2~3학년, 평균 23.5세, 남자 5명, 여자 16명)으로 이루어진 세 집단을 통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관사 습득 실태를 알아보았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관사와 고유명사, 정관사와 보통명사, 또 부정관사나 무관사와 보통명사로 구성된 영어 문장 30개를 연구대상자들에게 제시하여 문장에서 알맞은 관사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사가 불필요하다면 ∅에 체크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1. 설문 1-유형 및 문항 수

유형	문항 수 (전체: 30문항)
a. <i>the</i> + 고유명사 (the PN)	10문항
b. <i>the</i> + 보통명사 (the CN)	10문항
c. 부정관사/ 무관사 + 보통명사(CN)	10문항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의 관사쓰임의 친숙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해당 문항의 관사 쓰임을 얼마나 자주 접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설문도 함께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친숙도 비율을 5가지의 항목(①전혀 없다, ②조금, ③가끔, ④자주, ⑤많이)으로 구분하여 연구대상자 본인이 느끼는 친숙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3.1.2. 설문결과 및 분석

다음 표 2는 집단 별 총 평균과 유형별 평균점수를 비교를 한 것이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정관사와 보통명사, 부정관사/무관사와 보통명사 그리고 정관사와 고유명사 순서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평균점수의 크기는 정관사와 보통명사, 정관사와 고유명사 그리고 부정관사/ 무관사와 보통명사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세 집단의 모두 '*the* + 보통명사' 문제유형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the* + 고유명사', '부정관사/무관사 + 보통명사' 순으로 평균을 보였다.

표 2. 설문 1-각 명사 유형의 집단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1=대, 2=고, 3=중	평균	표준편차	N
the CN	대학생	7.00	1.225	21
	고등학생	5.73	1.857	49
	중학생	4.78	2.080	41
	합계	5.62	1.996	111

the PN	대학생	5.43	1.599	21
	고등학생	4.10	1.489	49
	중학생	3.49	1.535	41
	합계	4.13	1.663	111
CN	대학생	6.76	1.446	21
	고등학생	4.24	1.964	49
	중학생	2.76	1.300	41
	합계	4.17	2.170	111

아래 표 3은 피설문자 집단들이 보인 친숙도를 비교한 것이다. 대학생집단은 모든 유형에 대하여 가장 높은 친숙도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은 고등학생집단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집단의 친숙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 설문 1-명사구 유형에 대한 집단 별 친숙도

그룹	the CN		the PN		CN		합	
	M	SD	M	SD	M	SD	M	SD
대학생	3.73	0.60	3.73	0.70	3.59	0.64	3.73	0.64
고등학생	3.11	0.86	3.14	0.83	3.05	0.87	3.10	0.85
중학생	2.95	0.60	2.95	0.69	2.89	0.61	2.93	0.63

아래 그림 1은 표 2, 3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평균점수와 친숙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집단에서 고등학생집단 그리고 중학생집단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며, 평균점수에 따른 친숙도 또한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을 사선(\)이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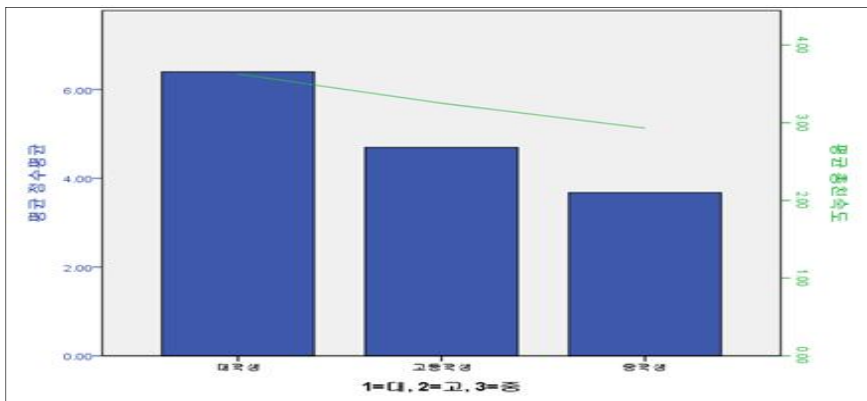


그림 1. 설문 1- 피설문자 집단 별 모든 명사 유형에 대한 점수 및 친숙도

아래 표 4는 정관사와 명사의 결합유형(정관사+보통명사, 정관사+고유명사, 부정관사/무관사+보통명사)에 대하여 피설문자 집단이 보인 습득정도(점수)와 친숙도 평균, 그리고 세 가지 각 유형의 점수와 그 친숙도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모든 집단(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이 보인 보통명사(CN)과 결합하는 관사 쓰임의 습득정도(점수)는 그 친숙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 즉 세 집단들은 공히 the CN과 CN에 있어 이들에 대한 친숙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받는다(the CN : $r = .18, p = .057$ (marginal), CN : $r = .22, p = .019$).

표 4. 설문 1-설문자 전체 집단 상관관계

type	점수	점수	친숙도	친숙도	상관계수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theCN)	5.62	1.99	3.23	0.82	0.18	0.057
2(thePN)	4.13	1.66	3.21	0.85	0.16	0.102
3(CN)	4.17	2.17	3.17	0.82	0.22	0.019

하지만 고유명사와 결합하는 정관사의 쓰임에 대한 점수는 친숙도와 그다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 두 요인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그 쓰임이 불규칙한 언어유형에 대한 빈도효과를 고려해보면 좀 특이한 경우이다. 이 특이성의 원인을 찾기 위해 아래 설문 2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3.2. 설문 2: 고유명사와 결합하는 정관사 용법의 습득 및 친숙도 조사

위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명사와 정관사의 결합 유형에 대하여 피설문자들이 보인 친숙도와 그들이 획득한 점수가 무슨 이유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 설문 2를 실시하였다. 보통명사와 결합하는 관사의 쓰임보다 고유명사에 쓰이는 정관사의 쓰임은 실제 영어 사용에 있어 훨씬 드물게 출현한다. 그러므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 이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대학생이 노출될 가능성보다 훨씬 낮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설문 2는 친숙도를 더 유의미하게 답할 수 있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2의 자료로 고유명사와 정관사 결합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즉 정관사 ‘the’를 필요로 하는 고유명사, 정관사 ‘the’를 사용하지 않는 고유명사, 그리고 정관사 ‘the’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고유명사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영어학습자들의 학습정도와 친숙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친숙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설문 1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3.2.1. 설문 실시

대구시 소재의 대학교의 영어 수준이 토익 점수가 720~980인 사이의 대학생집단 55명(평균2~3학년, 평균 22.5세, 남자16명, 여자3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영어 고유명사와 정관사의 쓰임에서 명시적인 규칙이 있는 경우와 그런 규칙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명시적 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명사와 ‘the’가 함께 쓰이는 경우와 고유명사와 ‘the’가 함께 쓰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즉 영어에서 산, 강, 바다, 사막, 왕국(names of mountains, rivers, seas, deserts, kingdom, united, union, state)등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정관사를 수반한다고 문법서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잘 알려진 산맥, 섬, 도시, 해협, 거리(names of single well-known mountains, islands, cities, canyons, streets)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정관사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문법서에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명시적 규칙이 없는 경우는 고유명사가 정관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즉 극장, 다리, 도로, 홀, 궁궐(names of theatres, bridges, roads, halls, palaces) 등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경우에 따라 정관사를 수반하거나 혹은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정관사 사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설문내용은 고유명사와 정관사 사용에서 명시적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10문항(세부적으로는 정관사와 고유명사에서 ‘the’를 쓰는 경우 다섯 문항, ‘the’를 쓰지 않는 경우 다섯 문항), 또 문맥에 따라 예외가 있는 명시적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5. 설문 2-유형 및 문항 수

유형	문항 수 (전체: 20문항)
a.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명시적 규칙이 있는 경우 (‘the’를 쓰는 경우/ ‘the’를 쓰지 않는 경우)	10문항
b.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명시적 규칙이 없는 경우	10문항

본 설문에 앞서 총2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예비 연구를 위해 대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보았다. 즉 각 문항의 고유명사에 정관사 공기 유무를 판단하게 함은 물론 그들이 갖는 친숙도도 판단하게 하였다. 설문결과 정관사와 고유명사 사용에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정답율이 65%, 친숙도 3.09(5점 기준)로 나타났다. 또한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정답율이 52.9%, 친숙도 2.92(5점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정답자들의 해당 언어항목에 대한 친숙도 평균은 2.85(5점 기준)로 나타났다. 이 친숙도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연구대상자들은 친숙도를 확인하는데 있어 중간 값 항목 즉 ‘③가끔’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런 경향은 정확한 친숙도 측정을 저해하는 요소라 판단하고 설문지의 친숙도 선택항목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①전혀 없다, ②가끔, ③자주, ④매우 많이) 재

구성하여 가급적 중간 값을 취하는 경향을 설문 2에서 피하게 하였다.

3.2.2. 설문결과 및 분석

아래 표 6의 정답과 친숙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학생집단의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정답과 친숙도 관계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설문 2 - 정답과 친숙도 간의 상관관계 (N=20)

	M	SD	<i>r</i>	<i>P</i>
정답	15.45	4.48	.41	.38*
친숙도	2.63	.14		

**p* < 0.05

그리고 아래 표 7은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의 명시적 규칙이 있는 결합유형과 규칙이 없는 결합 유형간의 점수 평균 사이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표 7. 설문 2- 문제유형의 규칙유무에 따른 정답률 비교

규칙	M	SD	<i>r</i>	<i>P</i>
규칙이 있는 경우	5.91	1.38	1.88	.076
규칙이 없는 경우	5.54	1.26		

**p* < 0.05

구체적으로 아래 표 8은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에 대한 규칙 유무에 따른 점수 평균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나타냈다. 상, 중, 하 그룹의 친숙도 평균은 명시적 규칙이 있는 결합유형이 명시적 규칙이 없는 유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설문 2- 규칙 유무에 따른 그룹별 점수와 친숙도 평균

	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이 없는 경우		
	하	중	상	하	중	상
점수평균	1~3점	4~6점	7~10점	1~3점	4~6점	7~10점
친숙도평균	2.30	2.65	2.86	2.23	2.56	2.59

아래 그림 2는 표 8의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에 대한 규칙유무에 따른 상, 중, 하 평균점수와 친숙도 평균을 다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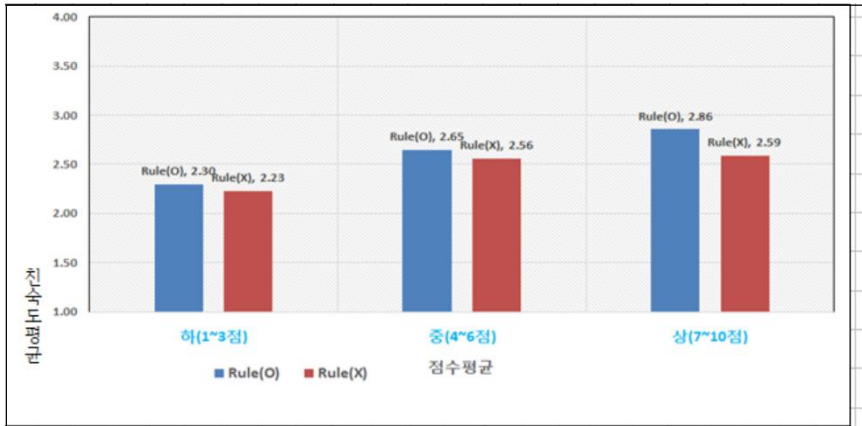


그림 2. 설문 2- 규칙 유무에 따른 상, 중, 하 점수 평균과 친숙도 평균

다음의 그림 3은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에 대한 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친숙도 평균도 높고, 평균 점수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반드시 친숙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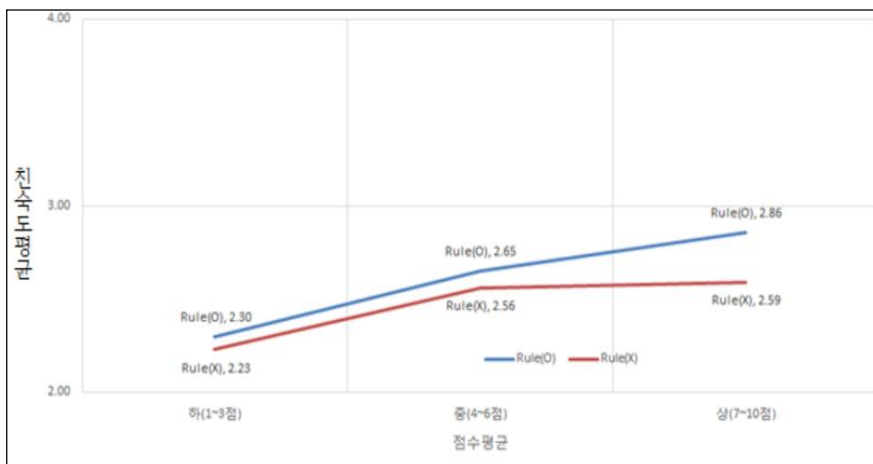


그림 3. 설문 2- 규칙 유무에 따른 상, 중, 하 점수와 친숙도 평균

4.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설문 1의 결과로 얻어진 유형에 따른 집단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첫 번째 '*the*+ 보통명사' 유형(*the* CN)의 경우는 대학생집단(평균:7.00, 표준편차:2.08), 고등학생집단(평균:5.73, 표준편차:1.85), 중학생집단(평균:4.78, 표준편차:2.08)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the*+고유명사' 유형(*the* PN)의 경우에 대학생집단(평균:5.43, 표준편차:1.59), 고등학생집단(평균:4.10, 표준편차:1.48), 중학생집단(평균:3.49, 표준편차:1.53)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부정관사/무관사+보통명사' 유형(CN)의 경우에 대학생집단(평균:6.76, 표준편차:1.44), 고등학생집단(평균:4.24, 표준편차:1.96), 중학생집단(평균:2.76, 표준편차:1.30)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중학생 집단의 정답율이 '*the*+ 보통명사'(*the* CN)의 가장 높고, 그 다음 '*the*+고유명사'(*the* PN) 마지막으로 '부정관사/무관사+보통명사'(CN) 순서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은 정답율이 '*the*+ 보통명사'(*the* CN)의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부정관사/무관사+보통명사' 유형(CN) 그리고 '*the*+고유명사'(*the* PN)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관사/무관사+보통명사' 유형(CN)과 '*the*+고유명사'(*the* PN) 유형 사이의 점수 차이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세 집단 모두가 '*the*+ 보통명사'(*the* CN)의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며, 그 다음에는 '*the*+고유명사'(*the* PN) 그리고 '부정관사/무관사+보통명사'(CN) 순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집단 간의 유형별 친숙도를 살펴보면, 세 가지 모두 유형에서 대학생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등학생집단 마지막으로 중학생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집단이 상대적으로 중학생집단보다 영어에 노출된 정도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어 관사 쓰임에 대한 친숙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첫 번째 설문결과를 통해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the*+ 보통명사'(*the* CN) 유형을 가장 잘 습득하고 그 다음 순서로 '*the*+고유명사'(*the* PN), '부정관사/무관사+보통명사'(CN)를 습득하고 있으며, 이는 친숙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설문결과를 근거로 영어의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정관사와 고유명사 공기에 관한 습득정도와 친숙도 간의 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두 번째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점수 평균은 15.45, 표준편차 4.48, 친숙도 평균 2.63, 표준편차 .14 (N=20, F=5)로 나타나서 평균값과 친숙도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문제유형의 규칙 유무에 따른 점수 평균은 규칙이 있는 경우(평균:5.91, 표준편차:1.38)로 나타났고, 규칙이 없는 경우(평균: 5.54, 표준편차:1.26)로 나타나서 $p=.076(p<0.05)$ 이므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림 2의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규칙유무에 따른 점수와 빈도평균을 살펴보면, 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점점 친숙도 또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점수평균

이 높을수록 비례해서 그만큼 친숙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제로 EFL 환경에서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규칙이 없는 경우는 친숙도가 낮고 실제로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제2언어 학습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정관사와 결합하는 고유명사의 경우에 일반적 규칙이 없는 경우의 예를 가급적 많이 노출시켜야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분석결과와 논의를 정리하면, 설문에서 고유명사와 정관사의 습득정도와 친숙도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친숙도를 표현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집단에서는 산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집단보다 노출 정도가 더 많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 집단의 영어 정관사와 고유명사 결합 유형에서 명시적 규칙이 존재하는 유형이 그렇지 않은 유형보다 습득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영어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결합유형 중에 명시적 규칙이 적용되는 유형의 친숙도와 습득정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대학생집단의 영어 정관사와 고유명사 결합에서 명시적인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유형에 대한 친숙도 평균값과 그 습득정도는 반드시 유의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집단의 하급과 중급의 습득정도를 보이는 경우, 습득 정도와 친숙도는 비례해서 나타나지만 상급의 경우 습득 정도에 따라 반드시 친숙도도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설문 문항에서 고유명사에 사용되는 정관사 용법 중 명시적인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유형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 원인일 수 있다. 또한 실제 설문에 제시된 유형의 사례들이 우연히도 피설문자에게 친숙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점이 그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 설문 조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통계적 정밀성을 갖춘 실험의 수준으로 설문조사를 개선하여 연구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관사의 습득 실태를 조사해보았다. 특히 정관사와 고유명사 공기에 대한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습득정도와 해당 언어항목에 대한 친숙도 사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습득 정도와 친숙도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고유명사와 정관사 공기 관계를 규정하는 명시적 규칙 유무에 따른 항목들의 평균점수의 차이는 친숙도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았다. 즉 명시적 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습득정도(평균 점수 값)가 높아질수록 친숙도 또한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점수평균에 비례해서 친숙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제로 EFL 환경에서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실제 잘 사용하지 않아 한국인 영어학습자에게 그만큼 덜 노출된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 관사의 습득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추상명사 혹은 물질명사와 같은 불가산 명사들과 관사의 쓰임이다. 그리고 고유명사에 있어 정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가 또한 어려운 점이다. 특히 정관사의 출현이 불규칙한 범주에 속하는 고유명사의 경우 개별 어휘항목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습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예식, 진현석. (2013). 한국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중간언어 실태 분석: 명시적 및 묵시적 구문지식을 중심으로. *언어학*, 21(3), 339-361.
- 최정아, 이예식. (2017). 영어 정관사-고유명사 공기현상과 문법교육. *중등교육연구*, 65(4), 1019-1047.
- Abbott, B. (2001). Definiteness and proper names: Some bad news for the description theory. *Journal of Semantics*, 19, 191-201.
- Abbott, B. (2009). *Reference*, Oxford University Press.
- Bannard, C., & Matthews, D. (2008). Stored word sequences in language learning: The effect of familiarity on children's repetition of four word combinations. *Psychological Science*, 19, 241-248.
- Beck, M. (1997). Regular verbs, past tense and frequency: tracking down a potential source of NS/ NNS competence differences. *Second Language Research*, 13, 93-115.
- Birdsong, D., & Flege, J. E. (2001). Regular-irregular dissociation in L2 acquisition of English morphology. In BUCLD 25, *Proceedings of the 25th Annual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pp. 123-132). Boston, MA: Cascadilla Press.
- Burnard, L., & Aston, G. (1998). *The BNC handbook: Exploring the British national corpus with Sara*. Edinburgh University Press.
- Connine, C. M., Mullennix, J. W., Shernoff, E., & Yelen, J. (1990). Word familiarity and frequency in visual and auditory word recogni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6, 1084-1096.
- Cziko, G. A. (1986). Testing the language bioprogram hypothesis: A review of

- children's acquisition of articles. *Language*, 62(4), 878-898.
- Elley, W. (1989) Vocabulary acquisition from listening to stori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4, 174-87.
- Ellis, N. C., & Schmidt, R. (1998). Rules or associations in the acquisition of morphology? The frequency by regularity interaction in human and PDP learning of morphosyntax.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3, 307-336.
- Ellis, N. C. (2002). Frequency effects in language processing: A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implicit and explicit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4, 143-188.
- Gass, S. M., & Mackey, A. (2002). Frequency Effect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4, 249-260.
- Hamayan, E., & Tucker, R. (1980). Language input in the bilingual classroom and its relations to second language achievement. *TESOL Quarterly*, 14, 453-468.
- Hatch, E. S., & Wagner G. (1976). Explaining sequence and varia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Special issue)*, 4, 39-47.
- Ionin, T., Ko, H., & Wexler, K. (2004). Article semantics in L2 acquisition: The role of specificity. *Language Acquisition*, 12(1), 3-69.
- Larsen-Freeman, D. (1976a). Teacher speech as input to the ESL learner. *University of California Working Papers in TESL* 10, 45-49.
- Larsen-Freeman, D. (1976b). An explanation for the morpheme acquisition order of second language learners. *Language Learning*, 26, 125-134.
- Lightbown, P. (1983). Exploring relationships between developmental and instructional sequences in L2 acquisition. In H. Seliger & M. Long (Eds.), *Classroom-oriented Research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217-243). Rowley, MA: Newbury House.
- Löbner, S. (1985). Definites. *Journal of Semantics*, 4, 279-326.
- Long, M. H. (1981). Input, interac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H. Winitz (Ed.), *Native Language and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sic)*.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379, 259-278.
- Long, M., & Sato, C. (1984). Methodological issues in interlanguage studies: an interactionist perspective. In A. Davies, C. Cramer, & A. Howatt (Eds.), *Interlanguage* (pp. 253-279).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Matushansky, O. (2006). Why rose is the rose: on the use of definite articles in

- proper names. *Empirical Issues in Syntax and Linguistics and Philosophy*, 26, 287-350.
- Nation,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berg, R. (1987). Patterns of vocabulary development in foreign-language learner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9, 201-220.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app, R. (2005).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d frequency and word familiarity. In B. Fisseni, H.-C. Schmitz, B. Schroder, & P. Wagner (Eds.), *Sprachtechnologie, Mobile Kommunikation and Linguistische Ressourcen. Beitrage zur GLDV-Tagung 2005 in Bonn* (pp. 249-263). Frankfurt: Peter Lang.
- Roberts. C. (2003). Uniqueness in definite noun phras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6, 287-350.
- Russell, B. (1905). On denoting. *Mind*, 66, 479-493.
- Snow, C., & Hoefnagel-Hohle, M. (1982). School age second language learners' access to simplified linguistic input. *Language Learning*, 32, 411-430.
- Tanaka-Ishili, K., & Terada, H. (2011). Word familiarity and frequency. *Studia Linguistica*, 65, 96-116.
- Van Langendonck, W., & Van de Velde, M. (2009). The functions of (In)definiteness markers with proper names. In W. Ahrens, S. Embleton, & A. Lapierre (Eds.), *Names in multi-lingual,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contact. Proceedings of the 23rd International Congress of Onomastic Sciences* (pp. 1005-1011). York University, Toronto, Canada.

<부록 1>

설문지 1

성별: 남 () / 여() 나이: () 이름:()
 총 영어 학습기간: ()년-초등학교/유치부 ()세 부터~현재()세
 영어권 나라에서 거주한 경험: 있다()-거주기간() / 없다()
 그동안의 영어 학습 방법: 학원()/개인과의()/ 어학연수()/자습()
 영어시험점수: TOEIC () / TOEFL () / 기타()

A.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관사를 선택하세요. 만약 관사가 불필요하다면 Ø에 체크하세요.
 B. 해당 문항에 제시된 관사의 쓰임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자주 접했는가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1-30)

1. The Anthropology Department is located in (a/an, Ø, the) Hascall Hall.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2. Amelia Earhart was flying a plane over the Pacific. (a/an, Ø, the) plane disappeared.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3. (a/an, Ø, the) time and space are related.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4. Your plane leaves at 7:30 in (a/an, Ø, the) morning.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5. (a/an, Ø, the) Valley Art is the oldest theater in my hometown.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6. Meat loaf again. We had (a/an, Ø, the) same thing for dinner last night!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7. Between Italy and Greece lies (a/an, Ø, the) Adriatic Seas.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8. Canadians, like Americans, speak (a/an, Ø, the) English.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9. I asked the pilot how high above (a/an, Ø, the) ground we were flying.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0. (a/an, Ø, the) Art Museum is located in the James Fisher Building.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1. The Air Bus is made by (a/an, Ø, the) European company.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2. He received an honorable discharge from (a/an, Ø, the) army.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3. My favorite basketball team is (a/an, Ø, the) Sonics.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4. (a/an, Ø, the) Mount Fuji, an extinct volcano, is the highest mountain in Japan.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5. I picked up the sugar bowl, and some of (a/an, Ø, the) sugar fell on the floor.

-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6. That actor was one of (a/an, Ø, the) Magnificent Steven in the famous film.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7. There is (a/an, Ø, the) interesting movie playing at the theater.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8. (a/an, Ø, the) camera was invented in the 1800s.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9. My last name begins with (a/an, Ø, the) C.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20. (a/an, Ø, the) Bay city University is well known for its Drama Department.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21. Sam threw an apple. The apple hit Bill in (a/an, Ø, the) nose.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22. Hurry! Hurry! We have (a/an, Ø, the) little time.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23. Venus is (a/an, Ø, the) bigger planet than Mars.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24. Some people go to (a/an, Ø, the) church every Sunday.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25. Borneo is (a/an, Ø, the) third largest island in the world.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26. (a/an, Ø, the) Chapter Five is longer than the rest.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27. The space shuttle can travel at seven miles (a/an, Ø, the) second.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28. My father doesn't drink coffee, but he does drink (a/an, Ø, the) tea.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29. For centuries people have used (a/an, Ø, the) horse as a beast of burden.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30. Our store is on the northwest corner of (a/an, Ø, the) Main Street.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부록 2>

<정관사 'the'와 고유명사의 의미적 범주>

(1) 정관사 'the'를 사용하는 고유명사의 의미적 범주

a. Names of Mountains:

- Nothing is more beautiful than the Rocky Mountains.

b. Names of Rivers:

- It is not advisable to swim in the Amazon River.

c. Names of Seas:

- I would love to sail through the Mediterranean Sea.

d. Names of deserts:

- The Great Victoria Desert is located in Australia.

e. Names of countries that contain the world *Kingdom, United, Union, Republic, State*:

- It never snows in the Kingdom of Thailand.

(2) 정관사 'the'를 사용하지 않는 고유명사

a. Names of Single well-known Mountains:

-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b. Names of Islands:

- Okinawa Island is located in the south of Japan.

c. Names of Cities:

- Jack has never been to a big city. I suggested London.

d. Names of Canyons:

- Devil's Canyon is a dangerous place to hike.

e. Names of Streets:

- The Royal Ontario Museum is on Bloor Street.

(3) 정관사 'the'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고유명사

a. Names of Theatres:

- ① The curtain has just fallen at the Royal Shakespeare Theatre, which opened in 1933.
- ② The pair were at the Ballets Russes season launch party at Sadler's Wells Theatre, North London.

b. Names of Bridges:

- ① The Golden Gate Bridge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in the world.
- ② London Bridge was the first bridge across the river that divided the city of London.

c. Names of Roads:

- ① I drove up the Old Kent Road the other day.
- ② People used to say that the stretch of the long Oxford Road was the busiest bus route in Europe.

d. Names of Halls:

- ① She is the first Korean to play at Carnegie Hall in New York.
- ② With 1700 people at the Albert Hall, it was an impressive event.

e. Names of Palaces:

- ① The Crystal Palace was a cast-iron and plate-glass structure originally built in Hyde Park, London.
- ② Buckingham Palace is a major tourist attraction.

<부록 3>

설문지 2

성별: 남 () / 여() 나이: () 이름:()
총 영어 학습기간: ()년-초등학교/유치부 ()세 부터~현재()세
영어권 나라에서 거주한 경험: 있다()-거주기간() / 없다()
그동안의 영어 학습 방법: 학원()/개인과외()/ 어학연수()/자습()
영어시험점수: TOEIC ()/ TOEFL ()/ 기타()

A.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관사를 선택하세요. 만약 관사가 불필요하다면 Ø에 체크하세요.
B. 해당 문항에 제시된 관사의 쓰임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자주 접했는가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1-20)

1. She is the first Korean to play at (a/an, Ø, the) Carnegie Hall in New York.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2. I would love to sail through (a/an, Ø, the) Mediterranean Sea.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3. I drove up (a/an, Ø, the) Old Kent Road the other day.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4. (a/an, Ø, the) Lake Superior is one of the largest lakes in the world.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5. Nothing is more beautiful than (a/an, Ø, the) Rocky Mountains.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6. (a/an, Ø, the) Hotel Victoria was built by Stevens in 1877 in New York, US.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7. It never snows in (a/an, Ø, the) Kingdom of Thailand.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8. (a/an, Ø, the) Great Victoria Desert is located in Australia.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9. Is there a park in the neighborhood? (a/an, Ø, the) High Park is just down the street.
(a/an, Ø, the)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0. (a/an, Ø, the) Golden Gate Bridge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in the world.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1. (a/an, Ø, the) Buckingham Palace is a major tourist attraction.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2. Jack has never been to a big city. I suggested (a/an, Ø, the) London.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3. (a/an, Ø, the)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4. I would love to spend just one night in (a/an, Ø, the) Riz Carlton Hotel.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5. People used to say that the stretch of the long (a/an, Ø, the) Oxford Road was the busiest bus route in Europe.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6. With 1700 people at (a/an, Ø, the) Albert Hall, it was an impressive event.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7. It is not advisable to swim in (a/an, Ø, the) Amazon River.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8. The Royal Ontario Museum is on (a/an, Ø, the) Bloor Street.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19. (a/an, Ø, the) London Bridge was the first bridge across the river that divided the city of London.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20. (a/an, Ø, the) Crystal Palace was a cast-iron and plate-glass structure originally built in Hyde Park, London.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③ 가끔 ④ 자주 ⑤ 많이

최정아

41566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강사
전화: (053)950-5120
이메일: upgrade-3@hanmail.net

이예식

41566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교수
전화: (053)950-5830
이메일: yaesheik@knu.ac.kr

Received on November 15, 2018
Revised version received on December 14, 2018
Accepted on December 31, 2018